

관개 수리시설로 이용되는 영천 청제 (灌漑 水利施設로 利用되는 永川 菁堤)



안상진

18대 회장, 원로회의 부의장
재)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이사장
하천문화연구회 고문,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hydrosys@chungbuk.ac.kr

1. 서론

영천 청제(永川 菁堤)는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동과 금호읍 구암리 경계에 있는 신라시대 때 축조된 저수지로서 신라시대 476년 혹은 536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라시대 축조된 수리시설 중 지금까지 관개수리시설로 이용되는 유일한 곳이다. (그림1)

2005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 152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청제를 축조한 기록을 담고 있는 청제비(菁堤碑)는 1969년에 보물 제 517호로 지정되었다.

청제는 영천시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서 영천시 도남동과 금호읍 구암리 경계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두동강 났다. 영천시에서 4번 국도를 따라 4km정도 가서 경부고속도로 영천 나들목 우측에 있으나 주위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서 쉽게 찾기가 어렵다. 신라시대에 축조할 당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농업용수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였고, 지금도 구암리 일원의 농업용수 저수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영천 청제는 영천시 도남동과 구암리 채약산 일원을 유역으로 하고 있으며 수혜지역은 금호읍 구암리 일원이다.

청제의 제체의 길이는 244m이고 제체의 높이는 12.5m이다. 유효 저수량은 52만 1500m³이다. 취수형식은 사통(斜桶)형이며 한발빈도는 10년이고 홍수빈도는 100년이다. 유역면적은 135ha이고 인가면적은 154.2ha이며 만수면적은 21.4ha이다. 청제는 영천시 건설과와 문화재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영천 청제 뚝 아래에는 비각이 있으며 그 안에는 신라시대 청제 저수지 축조에 대한 기록을 담은 청제비와 1688년(숙종 14) 절단되어 흙속에 있던 청제비를 다



그림 1. 영천 청제

시 세우게 된 경위를 기록한 청제중립비(靑堤重立碑)가 있다. 청제비는 이두문자로 쓰여 있으며 여기에는 청못(靑池)을 세우게 된 자세한 경위와 청못의 여러가지 제원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을 보면 536년(신라 법흥왕 23)에 전국 280개 지역에서 각각 23명씩 선발하여 7,000여명이 동원되어 536년(병진년) 2월 8일에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청제축조가 당시 국가차원의 사업이었음을 보여준 증거이다.

2. 영천 청제비(永川靑堤碑)

영천 청제비는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동 산7-1번지에 있으며 영천 청못(靑池)의 축조와 중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비석이다. 1968년에 한국일보사 주관 신라삼산학술조사단이 발견하였다. 두개의 비 가운데 흔히 ‘청제비(靑堤碑)’라고 부르는 비의 양면에는 각기 시대가 다른 비문이 새겨져 있다. ‘병진년’의 명문이 있는 것은 청못을 처음 축조했을 때 새긴 것이다. 반대면의 ‘정원 14년’이라는 명문이 있는 것은 청못을 새로 수리할 때 새긴 것이다. 크기는 높이 130cm, 너비 93.5cm, 두께 45cm이다. ‘병진년’으로 시작되는 비문은 전문 10행, 각 행 9~12글자, 자경(字徑) 4~5cm

이고 전문 약 105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마모의 정도가 심하며 다수의 글자를 제대로 판독할 수 없다. 글자모양은 고졸(古拙)한 형태이다.

비문이 쓰여진 연대는 ‘병진’이라는 간지로 보아 536년(법흥왕 23)으로 추정된다. 비문의 내용은 비를 세운 연·월·일, 공사의 명칭, 공사의 규모, 동원된 인원수, 청못의 면적, 청못으로 인해 혜택 받을 수 있는 농지면적, 공사를 담당할 인물의 이름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원 14년’으로 시작되는 비문은 전문 12행, 각 행 4~12글자, 자경 4~6cm이며 전문 130자가 새겨져 있다. 글자모양은 역시 고졸한 면을 지니고 있다. 정원 14년이라는 절대 연대로 보아 비문이 쓰여진 연대는 798년(원성왕 14)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의 내용은 청못의 수리가 완료된 연·월·일, 비문의 표제, 파손되어 수리하게 된 경위, 수리한 뜻의 규모, 수리기간, 공사에 동원된 인원수, 관계담당관의 이름 등으로 되어 있다.

정원 14년명의 내용을 보면 소내사(所內使)가 청제의 파손사실을 왕실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받은 뒤 수치(修治)공사를 완료하였다. 소내(所內)라는 말을 왕실에 직속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청못이 있는 곳이 소내로 통칭되는 신라왕실



그림 2. 영천 청제비

직할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소내사는 왕실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고 현지인으로서 평소 왕실 소유지를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던 인물로 보고있다.

여기서 왕실직할지의 관리와 수취에서 소내사 즉 현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청못이 절화군의 경역 내에 있지만 청제의 파손 사실을 보고하여 파손 현황을 살펴볼 것을 지시받고 수취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절화군(切火郡: 영천) 태수(太守)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36년 병진명 비문에서도 지방관이나 촌주(村主)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곳이 536년 병진명 단계부터 798년 정원명 비문에 이르는 기간동안 왕실직할지로 존재해 왔고, 왕실직할지인 만큼 현지 지방관에 의해 수행되는 단순한 역역(力役) 동원방식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수취공사에는 부척(斧尺:도끼를 사용하는 기술자) 136인과 법공부(法功夫:국가에 소속된 일꾼) 등 14,140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를 전국에서 일시에 동원된 인원으로 판단하고 그만큼 대규모 공사를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국규모의 공사라고 보기에는 공사 관련자들의 숫자나 관등이 너무 단출하며, 정못이 위치한 왕실 소유지

역부(役夫)들이 주력으로 징발되고 인접한 2군, 즉 절화군과 압량군(押梁郡)에서는 조역(助役)이 징발되는 것으로 보아 비문에 기재된 인원은 일시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연인원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청제비 청원 14년명에서 전대등(典大等)의 존재가 확인된다. 마모된 비문이 제8행 4번째 글자와 5번째의 글자를 전대등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798년 청못 수취공사에 청못이 있는 왕실 직할지의 역부만으로는 부족하여 인접한 절화·압량군에서 조역을 징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현지인인 소내사가 절화·압량군에 조역을 징발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므로 집사부(執事部)의 차관인 전대등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천 청제비는 신라 수리시설의 실태, 통일신라시대의 중앙집권 체제의 역역 동원관련 등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청제비 바로 옆에는 1688년(숙종 14)에 세운 ‘청제중립비(靑堤重立碑)’가 있다. 원래 청제비에서 서쪽으로 5m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청제비와 나란히 비각 안에서 있다. 높이 107cm, 너비 77cm, 두께 15cm의 화강암 비석으로 비문은 전문 10행, 각 행 14글자, 자경 5.5cm이다. 비문의 내용은 청제비가 1653년 순치 계사년(順治 癸巳年)에 절단되어 흙 속에 묻어 있

던 것을 최일봉(崔一奉) 등이 다시 맞추어 세웠다는 것이다. 이 청제 중립비를 통해 청못과 청제비를 아끼는 사람들에 의해 귀중한 금석문이 소멸을 면하게 된 경위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조선시대의 수리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청제 제도

청제 제도는 우리 선조들이 관개농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고자 청못 등을 축조·관리하던 역사적인 방법을 말한다. 청못은 536년(신라 법흥왕 23)에 축조되었고, 798년(신라 원성왕 14)에 중수되었으며, 1688년(조선 숙종 14)에 중립비를 세웠다. 청못은 오늘 날에도 경상북도 영천군 금호면 구암동에 위치하여 인근 농토를 관개하면서 천수백년동안 민족과 애환을 함께 해 오고 있다.

살펴 보건대 쌀농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수리와 관계는 기본적인 대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온 심혈을 기울여 왔다. 수리관개시설기는 비단 언제(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냇물을 전담으로 끌어 들이는 보(淤)도 있다. 그런데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몇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 자연적인 조건이다. 못이나 보를 축조하기 위한 지형·지질 및 관제용 전담이 펼쳐져 있어야 한다. 즉 노동력이나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인 이해관심이다. 수도작 농업생산기술이 어느정도 발달하여 사람들이 다른 생산부분보다 벼농사의 생산성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신하고 그러한 수리관계 시설을 강렬하게 희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적 조건이다. 물을 저장하는 기술적 노동

과정과 알맞게 관개를 할 수 있는 질서를 지킬줄 알아야 한다.

3.1 축제(築堤)

축제란 못둑을 처음으로 축조함을 말한다.

벼농사에는 대량의 물이 요구되고 있는데, 벼는 우리나라에서 삼한시대부터 재배되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내 자료에는 서기33년(백제 다루왕 6)에 처음으로 벼농사를 지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원전후부터 남부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자료는 1920년 김해폐가에서 기원전후 것으로 추정된 탄화된 벼덩어리가 발견된 것으로도 확인된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 치수관개사업을 벌린 기록은 서기 144년(신라 일성왕 9)의 자료이다.

「남담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남담은 수리용 못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320년(신라 눌해왕 21, 백제 비류왕 17)에는 오늘 날의 전북 김제 땅에 「벽골제」가 준공되었고 그 뚝의 길이가 1700보에 달했다고 한다. 320년 당시 벽골제는 백제 땅에 소속해 있었음에도 그것이 신라본기심으로 기술된 두찬업을 이관련 교수가 밝히고 있다.

어찌 던 고대국가가 확립된 4세기 이래 축조된 관제용 못들 중 그 동안 여러 차례 보수되면서 오늘날까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들 중 특히 청못을 중심으로 축제관계자료를 들추어 그 실체에 접근하기로 한다. 못을 처음으로 축조함에는 자연적, 경제적, 기술적 조건이 갖추어 진 데다가 사람들이 못을 축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무르익어야 한다고 전제하였거나 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청못을 축조함에 있어서도 그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연적인 조건을 살핀다. 못만 道南(도남)들에

는 1929년 현재 2014두락(6,713m²)에 달하는 수리안 정답이 있다. 도남들은 비옥한 양토질의 퇴적평야이다. 늘 북편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북안천은 들 서편에서 금호강 원류와 합류된다.

청춘이라 청못이 위치하고 있는 언저리에 있었던 마을인 듯 하다. 세종신록 지리지와 경상도 지리지 영천군조에 수록된 「청춘채(靑村堤)」는 이 청춘에서 따온 이름인 것 같다. 당시에 유포된 전설에 따르면 골벌국이 신라에 통합된 당시에는 이곳에 촌락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과연 그 언저리에서 가야토기와 기와조각이 발견된다고 한다.

청못 뚝 중심부에서 좌우를 살펴보면 왼편 청용언덕과 바른편 백호언덕 끝은 못 뚝 중심부에서 맞닿고 있다. 못 뚝이 되기전에는 못안 두골물이 이곳에서 합수 되었음이 분명하다. 일대의 기반은 수성암으로 되어 있고 정토질의 황토가 노출되어 있어서 일단 저장된 물은 증발하는 이외 누수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으로 보아 우리 선인들은 벼농사의 높은 생산성을 채득하였을 때 이곳에다 못을 막으려하는 강렬한 충동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3.2 수치 (修治)

못이 축조되고 난 뒤에도 그것을 줄곧 수축하지 않으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매년 이그러진 못둑에 흙을 쌓기도 하고 누수되는 곳을 솔질하며 더러는 물넘이 등에도 손질하며, 원배수구인 水桶 즉 원굴을 개채하거나 못안에 최적된 흙을 파내는 대역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고전기록에는 못 수축에 관한 자료들이 얼마든지 발견되나, 「1395년(대초4)의 자료에서 권농의 요체는 못을 잘 파는나에 달려 있다. 수령이 할 일 중 이보다 긴요한 것이 없다. 못이란 가뭄에 대비하는 일이다

… 권농관을 정하여 봄, 가을에는 못을 수축하고 설누를 저장하여 요긴하게 관개하도록 힘쓸 지어라」라고 전남장 정문은 진언하고 있다.

이제 798년 (신라 원성왕 14)에 청못에 일대역사(一大役事)을 벌린 「정원수치비문(貞元修治碑文)」을 통하여 그 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검토하기도 한다.

「정원수치비」는 1868년 12월 신라삼산학술조사단에 의하여 학계에 알려졌다. 전문이 거의 판독되었으므로 이 김석문이 귀계에 기여한 바는 실로 지대하므로,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보호각에 소장될 만큼 귀중한 자료이다. 위의 비문은 청못에 대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음 사항만을 재음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역사에 등장한 「부척(浮尺)」이다. 「부척」이란 배수구인 원굴의 木桶(원굴)과 木槽(땅굴)을 다듬은 木工인 듯 싶다. 못 축조와 보수에 있어서 가장 기술을 요하는 것이 목통작업(木桶作業)이다. 청못에서 1929년에 목통(木桶)을 개채하였다. 그 용재를 구입하여 다듬고 맞추는데 기술인력과 경비가 소요되었을음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청못의 규모이다. 뚝의 길이 35보, 높이 6.3보, 폭이 12보라 했다. 청못은 지형상 목뚝을 높이는 외에 더 확장할 수 없다. 현지 고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청못은 수리로 창에 가입된적도 없고 관리방법도 조상 전례의 것을 그대로 고수할 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렇다 할 만큼 커다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 789년에 청못을 보수할 당시 출역한 사람들이 실제로 못둑에 날라다 쌓은 적토량은 얼마인지 대략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시의 못둑의 규모는 높이가 7.8m 길이가 43.5m, 폭은 밑변이 14.9m, 윗면의 너비 2.6m(현장실측) 이므로 못둑의 총 적토량은 3,002.8m³이다.

즉, 1,160m³의 흙으로 이 못뚝을 쌓는데 연안원 14,130명이 동원된 셈이니 1인당 평균 운반량은 164.2t이다. 동원된 인원 전원이 흙 운반에만 취역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고로등의 증언에 따르면, 거기에서 감독자, 잠역자의 흙을 파고 실어주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한다.

넷째, 비문 중 助役 切役 押梁 兩郡에서 각기 수미상 동수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조역의 수자는 그 부분이 패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다섯째,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청못의 저수량이다. 그러나 위의 비문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청못의 관개면적을 활용하여 못의 규모를 원용하여 그것을 추계하는 일이다.

4. 신라관개제도

물이 없으면, 쌀을 생산할 수 없다. 아무리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하더라도 치수, 관개 등 수리없이 는 수도작 생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대자연에 도전하면서 물을 이용하여 쌀을 생산하려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은보나 못을 막기 시작한 것은 벼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때를 같이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에 개입할 겨를이 없다.

첫째, 영천의 청제와 김제의 벽골제 등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관개시설에 주어진 자연적 조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그러한 대토목공사를 일으킨 동기는 어떻게 주시했던 것인지, 그것이 또 얼마나 지대한 대역사였던 것이지를 고증하려고 한다.

셋째, 이러한 관개시설은 역사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던 것인지에 접근해 보려고 시도한다.

본 연구의 주자료는 고전적인 기록물 김석물 외에

여러 학자 이기백, 이광린, 정영호 등 많은 선학들이 이미 해명한 2차 자료에 힘입은 바임을 밝혀 둔다.

전통적인 생산방법에 따를 경우, 쌀은 다른 오곡에 비하여 토지 및 노동생산성이 2-5배나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벼 생산에는 물이 제사의 요소로서 필수적으로 요망되는 것이니 못이나 보를 막고자 하는 강렬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의 발로라 할 것이다.

이렇게 구현된 것이 곧 청제, 벽골제 등의 관개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제는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구암동 43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이다. 못 밑 도남들에는 1929년 현재 2,014두락(6,713m²)에 달하는 수리안전담이 있다. 도남들은 비옥한 양토질의 퇴적평야이다. 들 북편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북안천은 들 서편서 금호강 본류와 합류한다.

지형관개를 살펴보면 현 기술수준으로는 풍부한 금호강물을 양수할 수 없다. 반면 남쪽으로는 채약산(406m) 기슭에서 발원한 좌우 두 개의 못안 골물을 청촌에서 합류되어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 이수조건이 아주 좋다.

청촌이란 오늘날의 청못이 자리잡고 있는 곳에 정착해 있던 마을인 듯하다.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지리지 영천군조에 수록된 「청촌제」는 이 청촌에서 따온 이름인 것 같다. 당시에 유포된 전설에 따르면 골벌국이 신라에 통합된 당시에는 이곳에 촌락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과연 그 언저리에서 가야토기와 기와조각이 발견되기도 한다.

청못 독 중심부에서 못안을 등지고 못뚝 좌우를 살펴건대, 왼쪽 청용 언덕과 바른편 백호언덕 끝은 못뚝 중심부에서 맞닿았다. 못뚝이 되기 이전에는 못안 두 골물이 이곳에서 합수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을 맞추고 있는 못에 일찍부터 정착하고 있었던 우리 선인들이 벼농사의 그 높은 생

산성을 체득하였을 때, 이곳에다 못을 막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을 받았을 것이다.

못이 축조될 자연적 조건으로는

- ① 관개할 논(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 ② 利水(이수)가 알맞다
- ③ 저수하기 알맞은 공간과 독을 쌓기에 비교적 손쉬운 V형 지형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살피건데 유서깊은 많은 못, 이를테면 대구의 승당재, 단상재, 경산의 남매지, 제천의 의림지 그 밖의 많은 못과 심지어 오늘날 축조되는 댐도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선인들께서 처음으로 정체를 축조했을 적에 세운 전문 105자로 된 「병진청제수치비」 문은 오랜 풍우에 마멸되어 겨우 74자만이 판독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798년(원성왕 14)에 일대수축 역사를 가했는데, 그 기념으로 세운 「정원수치비」 문등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위의 수치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798(원성왕 14) 4월 13일에 대역을 마친 청못의 보수기인데
- ② 못독이 허물어 젖기에 소내사(所內使, 집사관리인)로 하여금 이를 보수감독 하게함.
- ③ 보수된 청못의 규모는 독 길이 35보, 높이 6보3척, 폭 12보이고
- ④ 역사기간은 2월 12일부터 4월 13일(2개월)간임.
- ⑤ 출역한 인원은 부척(斧尺) 136명, 법공부(法功夫)

14,140명인데 절화(切火) (영천입탁) 압량(경산 압량) 양군의 조역을 받음.

위의 비문은 청못에 대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다음 사항을 재음미하고자 한다.

첫째, 청못의 규모이다. 독의 길이 35보, 높이 6.3보, 폭 12보 라고 했다. 앞서 확인한 바 청못은 지형상 못 독을 높이는 외에 더 확장할 수 없다. 현지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청못은 수리조합에 가입한 적도 없고 관리방법도 조상전례의 것을 그대로 고수할 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렇다 할만큼 커다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못 규격이 척보법으로 표시된 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표-1>과 같다.

둘째, 못 독의 적토량이다.

당시 못 독의 규모는 <표-1>과 같고 그래서 못 독의 총 적토량을 3,002.8m³이다. 즉 1,159.3m³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1,160m³의 흙으로 이 못독을 쌓는데 연인원 14,130명이 동원된 셈이니 1인당 평균 운반량이 164.2t이다.

셋째, 비문중 「조역, 절화 압량2군」 부분의 해석 문제다.

이기백 교수는 조역의 절화 압량 양군에서 각기 수미상인 동수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주역의 숫자는 그 부분이 비문에서 패어져 있어서 전혀 짐작할 수 없다.

역사등장한 연인원은 14,130명이며, 이는 1688년(숙종14년)에 세운 정제중립비문에 새겨진 14,800과도

표 1. 청못 규모

구분	자료	수치비문(보)	환산(m ²)
독 깊이		35.0	43.6
독 높이		6.3	7.8
독 폭		12.0	14.9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이 역사에 등장한 부척(斧尺)이다. 부척이란 배수구인 얼굴의 木桶(원굴)과 木槽(땅굴)을 다듬는 木로 인듯 싶다.

못 축조와 보수에 있어서 가장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목통작업(木桶作業)이다.

5. 맺는말

청제제도를 해명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청못은 6세기에 축조되었으며, 그곳에서 못을 쌓기위한 천혜적인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전정(田政)은 쌀 300석 정도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청못만의 관개농법은 인접한 군현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역사적으로 한국농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798년의 청제수치비 및 보조자료를 원용하여 8세기의 대역사에는 목공(木工) 136명의 연원 14,140명의 노동력이 동원되었다. 당시 청못의 규모와 관개면적이 확인됨으로서 못둑 적토량 3,002.8㎡ 중 인공적인 것이 1,159.3㎡이고 저수량은 150,951~165,159㎡로 추계되었다.

셋째,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의 청못 현장조사자료 및 청제 회기를 원용하여 청체회의 역

사, 조직, 목거지 및 치학, 수부의 비용과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신라의 관개제도를 영천청제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하면

첫째, 못이나 보를 막는데는 자연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리한 시설을 축조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 동기관 확실한 이해관심이 크다는 주장을 하였다.

둘째, 김석물 등 1차 자료와 현지답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제와 김제의 벽골제 등의 자연적인 조건 외에 그들의 규격을 상호 검토하여 청제는 전형적인 못인데 비하여 벽골제는 대천(大川)에 축조된 초대형 湫(보)가 아니었던가 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다시 초점을 청제에 맞추어 그것은 상주의 공검지와 함께 경상도의 관개농업법을 높은 수준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한국의 수도작농업경영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주장하였다. 영천 청제비는 경상북도 기념물 152조로 지정된 영천 청제 북쪽에 있는데 1968년 신라 삼산학술조사단에 의해 발견되는 견비년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최고의 수리비로 인정받고 있다. 1969년 11월 21일 보물 제 517조로 11월 19일 문화재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기되어 보물로 재지정 되었다. 영천 청제비는 신라시대 농사와 관련된 수리시설의 축조를 알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및 인용문헌

1. 한국금석 유문, 황수영, 일지사, 1976
2. 신라통일기의 황실직할시와 군현제, 하일식, 동박학지, 199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7.
3. 영천청제비를 통해 본 청제의 축조와 수치, 이우태, 「변태서 박사 회갑기념사향 논총, 삼영사, 1985」
4. 영천청제비의 병진명, 이기백, 「고고마늘 106-107」, 1970
5. 영천청제비 정원명의 고찰, 이기백, 「고고마늘」, 102, 1970
6. 영천청제비 정원 14년 명의 재검토, 김창호
7. 신라관개제도 연구, 권병탁
8. 청제제도 연구, 권병탁